

안전수칙 무시한 난방기구 사용

건물관계자는 먼저대피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발화시간 : 1984. 10. 20 03 : 40
- 재산피해 : 동산1,000만원, 부동산2,000만원
- 인명피해 : 사망 4명, 경상 8명, 중상 3명

1. 건물개요

본 건물은 1980년도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6층 건물로서 북쪽에 4층 슬라브, 동쪽에 단층 슬레이트 건물이 접해있고 기타는 도로가 나있다. 지상 6층중 1층과 2층이 모두 피난층이며 건물정면에서 보면 2층은 이번 화재의 발화층으로서 병원 출입구이고 1층은 지하층으로 보이는 형태로 되어있다.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별	면적 (m ²)	용도	비고
1	140	보일러실, 진료실, 사무실	피난층
2	140	진료실, X선실, 응급실, 사무실	발화층
3	140	입원실	
4	140	주거	
5	140	주거	
6	92.37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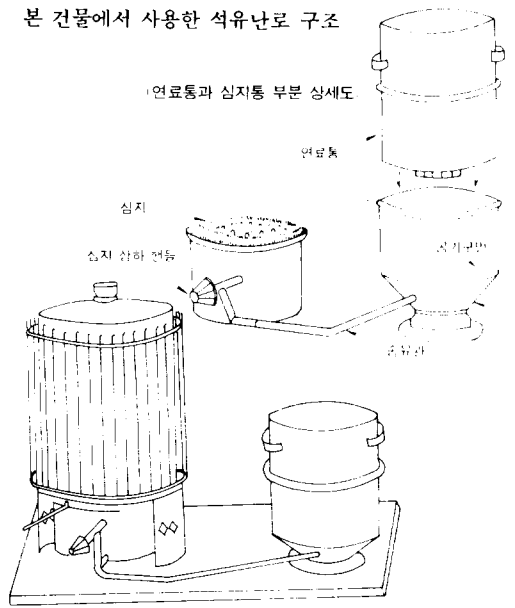
2. 화재현황

화재가 일어난 시각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984년 10월 20일 오전 3시 40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발생전 건물내에는 당직의사인 원장을 포함한 건물관계자 4명과 환자 12명 및 환자보호자 다수(숫자미상), 그밖에 5층, 6층 주거용도의 거주자 9명이 있었다.

2층 응급실에는 석유난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은 석유난로에의 급유방법을 모르는 간호보조원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우선 발화기체인 석유난로의 구조(그림참조)와 연소 mechanism을 살펴보면 연료공급방법은 유면의 높낮이 차에 의하여 별도의 연료통으로 부터 난로 본체로 연료를 보내는 낙차식이고, 연소방식은 심지상하식이며 열의 전달은 자연대류형식의 것이다.

이번 화재의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화자는 난로에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난로불을 켜채 연료통이 아닌 기름받이 접시에 많은 양의 석유를 부음으로써 송유관을 통하여 심지안 내통으로 들어가 석유가 심지위로 넘쳐 흘렀고 이 넘치는 석유에 불이 붙어 난로 본체 밖으로 흘러나와 주위로 번졌다.



이때 당황한 실화자는 기름받이 접시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우려, 난로 본체옆에 내놓았던 연료통을 기름받이 접시에 올려 놓음으로써 그 안에 차있던 석유가 난로 깔판바다 주위로 넘침과 동시에 착화되어 순식간에 불길은 커지고 말았다.

불이 크게 번지자 실화자는 같이 근무하던 간호보조원 실습생을 시켜 1층에서 취침중인 의료요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자신은 건물 맞은편에 있는 경찰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연소확대 및 대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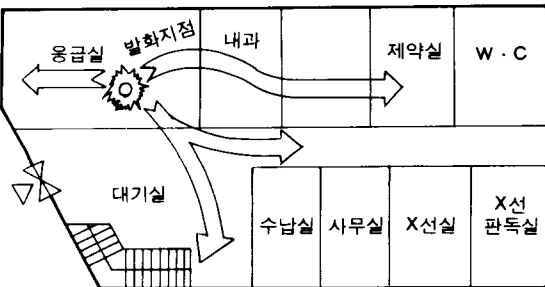
석유난로 주위에는 불과 0.5-1m 거리를 두고 가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인락의자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연소될 수 있었다.

불은 벽의 가연성 내장재를 타고 계속 번져 발화실 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main switch함을 태웠고 이로 인해서 건물전체가 정전됨으로써 당일 숙직 의료요원들도 화재신고, 초기소화, 피난유도등의 활동을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

상층으로의 연소는 거의 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수평방향으로는 실간의 출입문으로 번졌는데 각실의 천정에 가연성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어 연소확대가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연기가 상층으로 올라감으로써 3층 입원환자의 보호자중 한사람이 화재가 난것을 알고 3층 복도로 나와 소리쳐 전층에 화재발생을 알렸다.

대부분의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5층으로 올라가 좌측의 건물옥상으로 설치해놓은 목조사다리를 이용, 옆건물로 피난을 했으나 그중 한 보호자(여, 55세)는 환자를 5층으로 피난시켜 놓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병실에 갈



발화층 (2층) 평면도

이 와있던 자신의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상층으로 올라가던중 입원실 바닥에 깔아놓은 비닐장판등의 내장재가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3층과 4층사이의 계단참에 쓰러져 소사했다.

그리고 본건물의 식당종업원(여, 60세) 한사람은 5층에 있는 식당주방에서 잠을 자던중 불이 난 것을 알고 일단 옆건물로 대피했다가 다시 3층 입원실로 갔으나 연기와 유독가스에 못견뎌 지상으로 뛰어내리다 숨졌다.

그밖에 대피하다가 다친 사람은 경상8명, 중상3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불로 소실된 면적은 2, 3, 4층의 약500평방미터이며 재산피해는 동산 1,000만원, 부동산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문제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방기구의 사용 안전수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다루었다는 것과 또 화재발생후 취해야 할 초기소화의 방법, 경보, 소방서에의 신고, 피난유도등 종업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화교육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다.

또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유지관리 부실로 작동이 안되는 상태였다.

그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설치대상은 아니나 건물내장재를 가연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소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본건물 관계자들이 먼저 대피해 버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사전에 더욱 철저히 체크되어야 했다.